

## 렘넌트 운동 (요한복음 21:15-25)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길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이요 약속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갔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라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다.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다. 부활하기 전이나 이후나 다시 오실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결론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그래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해결되었다. 너희는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말이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언약으로 살라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 멀리 돌다가 돌아오게 된다. 언약 외에 뭔가가 1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간단한 차이인데, 이걸 계속 놓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날이 밝으려고 할 때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답인 것을 알라는 메시지이다. 밤새도록 해도 안되었는데 단 한번 말씀으로 끝나버렸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근본 언약으로 잡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이며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질문이다. 똑같은 것이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다. 평생을 두고 이 질문을 두고 바른 대답을 매일 하면 우리 할 일 다 한 것이다. 세상은 영적 문제이고 사단이 원인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다. 그러면 그것을 꺾을수 있는 답은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없다.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 이것은 일반은총이다. 다른 사람 살 듯..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기준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 그렇게 살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의 기준이 아니다. 신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마태복음 6:33이다. 이것은 우리의 언약의 기준, 삶의 기준이다. 너는 이것으로 살라. 이 말이다. 밤새도록 해도 안되는 분이 간혹 있다. 대부분은 옆집사람 기준으로 다 살아간다. 그게 정상인줄 알고 옆집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축복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직 기준에 미달이다. 왜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언젠가는 더 올라간다 도전을 해야지 왜 비교하며 거기에 있는가? 밤새도록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을 때 순간적으로 차고 넘치게 잡았다. 말씀 하나로 다 풀린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완전답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누리는 한주간 되기 바란다. 결심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잘 안되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

### 1.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뭘 받아서 남은자인 것이 아니다. 90% 이상의 신자가 그렇게 산다. 그저 받는것만 신경쓰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이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너 이 땅에 왜 살아, 그러면 이 말이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3절에서 나왔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다.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이 땅이 황폐해질것이라고 했다. 온 성읍에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안 따라갔다. 므낫세라는 왕이 이사야때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이다. 13절에 보면 그중에 심문의 일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해질것이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씨가 남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집은 텅텅비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것이 렘넌트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은 자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을 세상에 펼쳤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다시 심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한 시대적인 운동이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운동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렘넌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네 어린양을 먹이라고 세 번 이야기 하셨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다. 베드로는 약간 당황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세 번이나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을 간곡하게 전달하신 것이다. 렘넌트는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수님의 눈에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어린양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어린 양이다. 이런 분들도 포함한 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만 국한 된 단이라고 볼수는 없다. 어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중대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앞에 부름 받은 렘넌트라는 것이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나이를 따질 필요가 있는가? 나이를 따져서 나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남은자가 되어야 하고 어리고 젊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는 항상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화와 이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른들도 옛날에는 다 청년이었다.

제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다가 백인 할아버지에게 전했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라 해서 가서 차 한잔 했다. 그 할아버지가 사진첩을 가져와서 보여줬다. 이게 누구냐니까 자기라는 것이다. 군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완전 영화배우같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랬다. 전에는 젊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늙었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면 백인보다는 동양인이 더 낫다. 젊은때는 동양인이 못 따라간다. 나이가 들면 동양인들은 피부가 유지가 좀 되는데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 여하튼 전에는 다 청년이었다. 그리고 청년들,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다 나중에 어른 된다. 지금 나이를 따질때가 아니다. 전부 기도하고 언약잡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한다.

우리 금요일 예배에서 제2청년회에서 그간 있었던 것을 보고하고 기도제목도 내놨다. 코로나가 되어서 지금 금요일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 적다. 집에 있는 분들도 더 금요일예배 참여하기 바란다. 그런데 그 때 중요한 기도제목이 나왔다. 뭐냐면 미래 중직자라는 것이다. 예비 중직자로서 역할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예비 중직자 되고 싶으면 일단 2부 예배 참석하라고 했다. 중직자 메시지가기 때문에. 안젤리카가 회장인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와서 제 2 청년회에서 2부 예배 참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오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40대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인생에 나타나고 영웅이 된다. 부모들도 아이들 키울 때 생각 잘 해야 한다. 세상적으로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은 2등이다. 그래서 아이들 망친다. 저 10등에 있는 것이 1등 앞에서 나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2등이 1등 앞으로 와서 망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나이 따지고 그렇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을 어른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언약 딱 잡고 답 나서 올라오는 렘넌트들 잘 인도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 문제 꼭 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는 앞으로 전 세계에 모든 문제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댈수가 없다. 오직 복음을 가진자만 손 댈수 있다.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치유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치유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할거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만 살리면 우리 할 일 다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중대한 일을 두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렘넌트, 남은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이다. 병이 있는 사람들도 그 병에 대한 답이 이것이다. 사업 잘 안풀리는 분, 이것이 답이다.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 있는데, 이것이 답이다. 여기에 서는게 답이다.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안되는 것에 대한 답이 이것이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 해야 한다. 내가 남은 자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자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는다.

### 2. 남길 자

남은자는 하나님의 것을 남겨야 한다. 그래서 이 운동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사야 시대의 대표적인 렘넌트들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에스더 다니엘 모르드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표적인 남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적인 일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대로 끝난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 개 있다. 그들의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같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복음이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면 그 사람은 성경과 같은 역사를 보게 된다. 바벨론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이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니까 미국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거기서 전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했다. 그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나온다. 그리고 친히 주신 징조라는 단어도 나온다. 당연히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어깨에 정사를 매었다고 하였다. 당연히 한 아기가 그리스도이다. 정사를 매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를 혼자서 관리를 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아주 기이하고 묘해서 설명이 안된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어난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11장 1-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하였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이 있다. 우리도 이 복음 가졌다. 이 모든 것 믿고 받아들였다. 거기다가 창 3: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16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대역사 일으킨 그들과 똑같은 일을 미국과 남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믿어지면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작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 나는 10년 20년 전에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표는 지금 시작이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현장가면 바벨론시대에 했던 동일한 일을 미국과 남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아까도 말했듯 우리가 이해한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복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잡을 소망이 없다. 잘 생각해야 한다. 한번 예배로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되는 것이 그 순간 차고 넘치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다.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도 복음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는 세상에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제자가 와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모든 제자는 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픽업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같이 가는 것이다. 내 메시지도 들었지만 그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확립하는 것이다. 확립이 되면 그 사람을 자기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바울의 전략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복음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회당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방인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 그리고 그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참 놀랍다. 사도바울을 뽑아 올리기 전에 다 바탕을 깔아 놓으셨다. 사도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래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찾아 냈다. 제자들을 찾으면 어떻게 하는가? 좀더 깊이 집중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바울은, 이 사역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 정말 내가 가진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면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제자를 살릴 수 있다. 누구든지 붙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뽑은 제자라면 제자로 만들 수 있다. 이 사역자로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훈련이다. 앞으로 2부 메시지

는 전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뜻이 있는 분은 와서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우리가 돕고 있는 호세아스 목사는 4개국 순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니카라과에 있거나 지나는 중일 것이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것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김태호장로에게 보내면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스 목사님이 끝나면 다음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쿠바에 가게 되어 있다. 남미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들고 가면 문은 막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 렘넬트 청년들, 지금이 남미 복음화의 절대적인 시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복음을 가졌다. 치아파스에 연결된 한 교회에 한 2-300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 한 분이 이끌고 가고 있다. 그 장로님이 우리 리카르도 목사님에게 나에게 말해주라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려주면서 영어로 통역을 해줬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수많은 목사들이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뭐를 알게 되었는데 감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스 목사 교회에 평신도 일곱 명이 그 교회 뿐 아니라 그 지역의 1200미터 해발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주위에 순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일곱명이 가는데 전체를 여비를 계산하니 1,300불 드는 우리가 700불 정도 마련할 수 있으니 600불을 지원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남미 선교회장에게 이야기 해서 재정부에서 선교비 지원을 했다. 호세아스 목사가 왜 이렇게 하나면 자기 교회에 팀을 보내서 훈련도 하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다. 월요일 저녁에는 남미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다. 그 때 사도행전을 한다.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어떻게 성도들 중에 제자를 세울 것인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한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호세아스 목사가 바쁜데 다른 날은 몰라도 월요일은 반드시 들어와서 통역을 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일단 남미를 두고 첫 번째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사도행전의 전도전략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면 반드시 문 열리게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큰 나라이다. 쿠바에서는 아예 2-3주 계획하고 간다. 리카르도 목사는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응답이다. 미국만 할 것이 아니라 바하칼리포니아에도 가볼 생각이 없는가, 엔세나다부터 델 카보까지 가는 중에 중간중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목사가 가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계획 한번 해보라고 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리카르도 목사님 교회에 사임을 했는데, 거기 맡은 알론소 목사님을 조금 더 메인 스피커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리조나 교회하고는 지교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동의회를 마쳤다. 노회에서 방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중이다. 아리조나 교회는 아마 오늘 공동의회를 할 것이다. 결정이 되어지면 노회에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의 지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교회가 되면 노회도 도와야 한다. 돕는 방향은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레이크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보면 잘 하고 있다. 일단은 거기 에디목사님이라는 스페니쉬 교회에 문이 열려서 3월에 리카르도 목사가 가서 2박 3일 사역을 하기로 날짜가 정해졌다. 지난 주일에 레이크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메시지를 했다.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하니까 한 것이다. 거기서 만난 어떤 분과 연결되어 인디언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코로나로 못 모이기가 8개 교회가 연합하여 모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목사님이 알베르토인데 거기서 함께 복음 운동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 레이크 전도사님이 갈 때 미션을 줬는데 인디언 보호구역의 교회에 문을 열라고 하였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도 나는 생각도 안했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먼저 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 교회를 하나 제대로 살리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렘넬트 아이들 사진이 있었다.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교역자, 한번 보내서 주말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주일날 확장 주일학교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도 빨리 된다. 그러면 부모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저중에서 학사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학사에 기거하면서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학사가 평일에는 누구든지 오수 있다고 했는데 평일에도 많이 바빠질 것 같다. 교회가 문이 자주 열릴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파송하고 훈련하고 보내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넬트 운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자이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답이다. 153마리가 나왔는데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했다.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을 확인하고 나의 24를 누리기 바란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시 한번 잡고 치유되고 증인의 문이 열리기 바란다.